

“어? 그러면 터키 스낵바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위장한 가게잖아. 어째서 그렇게 꾸미는 걸까?”

나는 물었다.

“베를린은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쓸데없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요. 사람들은 터키 스낵바에서 실제로는 불가리아 사람들인 터키인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점원들이 설명했다.

다음날 나는 바로 얼마 전에 발견한 불가리아 식당으로 갔다. 나는 그 곳의 불가리아 사람들은 실제로는 터키 사람들 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 불가리아 사람들은 진짜였다. 그 대신에 바로 옆 이태리 식당의 이태리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로 정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가게를 인수하고 이태리어를 배우기 위해 시민 대학교에 다녔다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이태리 식당에 가면 이태리인들과 적어도 몇 마디 이태리어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얼마 후 나는 한 그리스 식당에 갔는데, 내 예감을 틀리지 않았다. 그 식당 종업원들은 아랍사람들로 판명되었다.

베를린은 불가사의한 도시다. 우선 여기서는 보이는 그대로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오라니엔부르크 거리의 스시 바에 부랴티엔<sup>37)</sup> 출신의 한 소녀가 카운터 뒤에 서있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베를린에 있는 대부분의 스시 바들은 일본이 아닌 미국 출신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식업 분야에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알디<sup>38)</sup>의 값싼 당근 통조림을 수제(手製)의 가스코뉴-당

37) 부랴티엔: 몽고 민족의 일종

38) 알디(Aldi): 독일인구 70%가 이용하는 식품과 생필품 할인 슈퍼마켓

근<sup>39)</sup>인 것처럼 갖다 파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곳에서 진짜는 아무 것도 없다. 각자가 그 자신인 동시에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을 조사했다. 하루 하루 지날 때마다 보다 많은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우리 집 맞은편의 중국 스낵바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출신이다. 뤼케거리의 인도식당 주인은 실제로는 카르타고 출신의 튀니지 사람이고 그리고 벽에 시끄러운 보-두-기기<sup>40)</sup>를 설치한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선술집 사장은 벨기에 사람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베트남 출신의 담배 가게 주인’조차 텔레비전 시리즈물이나 경찰로 인해 생겨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경찰들이 소위 베트남인들 중 대다수가 실제로는 내몽고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에 의해 그러한 고정관념은 조작된다.

나는 나의 조사 결과에 매우 놀랐고 마지막으로 거짓되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내를 계속 열심히 뒤지고 다녔다. 특히 돼지족발과 자우어크라우트<sup>41)</sup>를 파는 전형적인 독일 가게를 운영하는 독일인들은 소위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생각을 빼앗겼다. <올리>, <술리> 또는 그와 비슷한 이름을 지닌, 그리고 맥주를 항상 반값에 마실 수 있는 작고 분위기 좋은 술집들을 운영하는 독일인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그 곳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내가 어떤 엄청난 것의 실마리(단서)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39) 가스코뉴-당근(Gascogne-Möhren): 프랑스의 Gascogne주에서 생산되는 당근

40) 부-두-기기(Voo-doo-Zeug): 미국흑인 음악을 연주하는데 쓰이는 기계

41) 자우어크라우트: 양배추 절임

오늘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대부분이 러시아인들인 40여명의 엑스트라들이 촬영장 주위를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사(情事) 장면을 찍는다고 그들이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한 주 동안에 벌써 세 번째이다. 모두들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 전쟁 영화에서 전투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모든 탱크와 비행기들은 이 복잡한 연애관계를 장식하는 도구로만 이용되었다.

미이라 아가씨 타나는 저격병 바실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격렬하게 폭발소리가 들릴 때 마다 정보장고 다닐로프와 잠을 잔다. 그러는 동안에 로저 레빗은 고독에 괴로워한다. 그도 또한 타나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늘 혼자 있는 것이 마치 스탈린의 잘못된 것처럼 계속 그를 욕했다.

하마터면 나는 아침 식사를 놓칠 뻔 했다. 6시부터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은 햄을 곁들인 계란 프라이, 샌드위치, 커피, 차가 차려져 있었다. 모든 엑스트라들은 아침식사를 반기며 명하니 앉아 오래 기다릴 준비를 했다.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영화 <스탈린그라드>의 촬영은 가족 전체를 위한 소일거리가 되었다. 남자들은 전투장면에 참여하고, 여자들은 흐루시초프 스태프에서 여비서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촬영장 근처에 빙 둘러 앉아 있고는 했다.

정사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스태프가 먼저 상당한 폭격을 당했다. 그것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늘 상 있는 일이었다. 폭격을 당하는 동안 나는 부엌의 커다란 찬장 뒤에 숨어서 불안해하고 있어야 했다. 그 찬장은 아주 오래된 비싼 소품(小品)이고, 러시아어가 쓰여 있는 월계수 잎 무늬의 종이봉지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었다.

월계수 잎들은 이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소품

을 담당하는 여자는 어쩌든 러시아어를 읽을 줄 몰랐고, 중요한 것은 그 문구가 러시아적인 어떤 것이라는 점이었다. 폭격장면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다. 한 기술자는 부엌 찬장을 흔들고, 다른 기술자는 내 머리 위로 먼지를 쏟아 부었다. 여자 조감독은 만족해하지 않는다.

“불안해하는 연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날에 지을 만한 표정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굳어 있지만 말아요!”

“13 마르크를 벌려고 시간 내내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는 않겠어요. 온통 먼지를 뒤집어쓰고 월계수 잎이 그려있는 봉지로 덮인 찬장 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찡그리는 표정 연기라면 로저 레빗에게 시키세요.”

나는 항의조로 대꾸했다.

출연료 문제 때문에 연쟁이 있는 후, 결국 나는 교체되어 밖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다른 엑스트라들 쪽으로 가게 되었다. 정사 장면은 천막 벽을 이용해 그림자로 연출되었다. 천막 옆에서 우리 군인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불가리아 마술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카드 속임수를 보여주고 어떻게 연방정부가 그 당시 35,000 마르크의 대가를 치르고 그를 불가리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멋진 거래였지.”

불가리아 마술사가 말했다.

“그것은 쓸데없이 쓴 돈이었어.”

그의 독일인 동료가 대꾸 했다. 러시아인들은 그의 말에 대해 별 대꾸 없이 침묵했다. 여자 조감독이 와서 누가 카메라 앞에서



자기 엉덩이를 노출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었고, 그 대가로 출연료에 250 마르크를 추가해서 준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과 불가리아인은 부끄러워 주저했고, 독일 남자만 촬영준비를 했다. 두대의 카메라로 뒤쪽과 옆쪽에서 그의 엉덩이를 촬영했다. 그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했다. 미이라 아가씨가 천막 안에서 정보장교 다닐로프와 정육의 황홀경에 빠져있는 동안, 밖에서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카드놀이에서 진 사람은 방귀로 촛불 5개를 꺼야 했다. 그런 것이 바로 야만스런 러시아의 풍습이다. 30명의 군인들은 그 때 까무러칠 듯 즐거워해야 했는데, 그러나 모두들 부끄러워하기만 했다.

려진다.

악역인 야만인들은 러시아 배우들이 도맡아 연기한다. 아마 보통 독일에서 '야만인'이란 먼 외국에서 왔고, 러시아 억양으로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뉴욕에서는 정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한다. 미국에는 '우리와 다른 재능을 타고남'이라는 주제를 다룬 많은 책들과 할리우드 영화들이 있다.

그로인해 다수의 문화산업이 생겨났다. 보통 '다른 능력을 타고난' 많은 정신박약자들이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그들은 거기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산 물건들을 봉지에 담는다. 그들은 항상 친절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포레스트 검프>와 <레인맨>을 연상시킨다. 뉴욕의 레인맨들이 기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들은 물건을 담으면서, 항상 부드러운 과일과 야채를 먼저 봉투에 넣고, 2리터짜리 강통과 위스키 병을 그 위에 담는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상황에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미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그들의 이상한 논리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박약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쇼핑에 대한 즐거움을 망치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장 예쁘고 촉감이 좋은 물건들을 먼저 집을 뿐이다. 따뜻한 빨강색의 토마토, 파프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갑고, 죽은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올리브유 강통과 병들을 집는다. 그들은 물건을 무게가 아닌 다른 어떤 것, 아마도 미학적인 기준에 따라 가늠하는

듯하다.

최근에 베를린 극장에서 한 아프리카 흑인 여배우가 감독에게,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녀에게 악마 역할을 맡으라고 했는지 물었다. 감독은 특정한 그녀의 개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상해요. 나는 5년 전부터 독일에 살면서, 벌써 세 편의 연극에 출연했는데, 그때마다 악마 역을 맡았어요."

그 여배우가 말했다.

"진정해요! 마리 헬레네."

감독은 그녀의 커다란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본의 아니게 검다는 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러시안 디스코

Russendisko

주최측의 대략적인 증인 보고서

Ein umfassender Augenzeugenbericht des Initiators

**차** 파타라는 타헬레스<sup>75)</sup>의 클럽에서 11월 6일 처음으로, <10월 대혁명을 기념하는 야성의 춤>이라는 이름하에 러시아 히트곡들로 꾸민 댄스파티가 열렸다.

라디오 프로그램 <물티쿨티>의 선전 덕분에 <러시안 디스코>는 참석한 수많은 관중들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차파타>는 흥청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매표소에 있던 파티 주최자 부인의 계산에 따르면 총 300명으로 추산되는 손님이 왔었다.

주최자 부인은 모든 손님에게 엄격하게 7 마르크의 입장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에 사는 많은 러시아인들은 비협조적이었고, 공짜로 '야성의 춤'을 추려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공정한 요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입장료는 외모와 태도의 완강함에 따라서 4마르크와 7 마르크 사이로 매겨졌다.

75) 타헬레스(Tacheles): 베를린 중심지에 위치한 종합문화센터

관중은 젊고 국제적이었다. 그 곳에는 특히 오라니엔부르크 거리에서 사라졌다가 놀랍게도 타헬레스에 다시 나타났던 스페인 텔레비전 팀이 참석했다. 또한 반년도 훨씬 전에 타헬레스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여행단의 한 그룹도 갑자기 나타났다. 베를린 신문의 여자 지방편집장은 이 모든 것에 매우 흥분했고, 러시아인들만이 이와 같이 멋진 파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면, <차파타>의 카페에서 팔지도 않는 카밀레나 페퍼민트 차(茶) 같은 건강차를 여러 번이나 주문했다.

많은 손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파타> 클럽주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다. <차파타> 바(bar)의 매상은 기대에 못 미쳤다. 1년 이상 창고에 쌓여 있다가 이제야 팔아 치우려고 했던 다섯 상자의 진기한 술 <푸시킨-라이히트>도 주인의 생각만큼 잘 팔리지는 않았다. 많은 손님들이 상당히 빨리 취하기도 했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자신이 마실 술을 각자가 직접 가지고 왔다고 클럽 주인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

주최 측은 때때로 춤추고 있는 손님들에게 10월 혁명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밖에도 국제주의 및 국제이해의 가치를 관철시키 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번 반복했다. 예를 들면 숙녀들이 기사(騎士)의 호위를 청하는 춤인 소위 <바이췌 탄츠>의 시작을 알리는 방송에서 축제의 의의를 전달하고자 했다.

많은 독신 러시아 여자들은 그 곳에서 운명적인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들은 새 남자 친구를 만났거나, 또는 관심이 가는 상대를 사귀게 되었다. <물티쿨티>의 러시아 편집국

의 여자 편집장은 4시간의 '야성의 춤'이 끝난 뒤에, 자신을 <프로 지벤><sup>76)</sup>의 매니저라고 소개한, 반 대머리에 키가 약 190cm 인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를 애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녀가 억지로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그는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 남자는 그녀가 1년 동안 만나면서 호감을 갖게 된 뒤 갑자기 사라져 버렸던, 세 번째 남자친구처럼 <프로 지벤>의 매니저였기 때문에, 그 여자 편집장은 <프로 지벤> 방송국을 계속 비방했다.

또 다른 어떤 여자는 포츠담 출신의 젊은 영화 제작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지금도 매일 그녀의 집에 전화한다.

야성의 춤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디스크자키 팀은 완전히 탈진해서 4시간에 음악을 켜다. 대성공에 고무되어 주최자들은 다음에도 또 <디스코의 밤>을 가지려고 한다.

<러시안 디스코 - 거룩한 밤에 야성의 춤>

여기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주최자 올림

76) 프로지벤(Pro-Sieben): 독일의 사설 TV 방송국



차례로 미치게 만들기 위해 운전 교습소로 갔다. 내 아내는 전혀 교통법규에 구애 받지 않고 운전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나는 우리의 독일 입국에 대한 이유로 '호기심'이라고 조심스럽게 진술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재미'라는 말 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진술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다음 나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나의 이력서를 손으로 베꼈다. 모든 것을 서류가방에 넣어서, 다음날 나는 다시 쿠글러씨에게 갔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날이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꼭 첫 번째로 베를린 구청에 도착하고 싶었다. 호적과의 공무원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의 외국인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았다. 벌써부터 그들은 또 땅을 파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두 남자는 실망한 얼굴로 큰 구덩이 한 가운데 서 있었는데, 부인은 그 옆에 서서 두 남자들에게 베트남어로 욕을 했고, 두 남자들은 건성으로 변명하고 있었다.

나는 웅덩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물만 고여 있었다. 나는 곧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담배를 물어 둔 베트남 사람들은, 그만 그 곳을 잊어버렸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파면서 찾고 있지만 헛수고 하고 말았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왔고, 나의 서류들이 서류철에서 날려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다. 세밀하게 작성한 자필 이력서, 나의 독일 입국을 위한 모든 증거들,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쓰여 있는 커다란 질문지, 그 모든 것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속으로 날아갔다.

나는 아마도 독일국적 취득을 절대 하지 못할 것 같다.  
무엇을 위해 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단 말인가?